

■ 관타나메라와 관타나모

박 병 규

우리나라에 ‘아리랑’이 있듯이, 쿠바에는 ‘관타나메라’가 있다. 이 노래는 선율도 아름답고, 가수들의 가창력과 호소력도 뛰어나서 쿠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즐겨 듣고 부르는 명곡으로 꼽힌다. 먼저 1960년대 중반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한 샌드 파이프즈(The Sandpipers)의 노래를 소개한다.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관타나메라 과히라 관타나메라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관타나메라 과히라 관타나메라

Yo soy un hombre sincero
나는 진실한 사람
De donde crece la palma
야자수 무성한 고장 출신

Y antes de morirme quiero
죽기 전에
Echar mis versos del alma
이 가슴에 맺힌 시를 노래하리라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관타나메라 과히라 관타나메라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관타나메라 과히라 관타나메라

Mi verso es de un verde claro
내 시는 화창한 초록색
Y de un carmín encendido
내 시는 불타는 선홍색

Mi verso es un ciervo herido
내 시는 상처 입은 사슴
Que busca en el monte amparo
산 속 보금자리를 찾는

Con los pobres de la tierra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Quiero yo mi suerte echar
이 한 몸 바치리라

El arroyo de la sierra
골짜기에서 흐르는 시냇물이
me complace más que el mar
나는 바다보다 더 좋아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관타나메라 과히라 관타나메라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관타나메라 과히라 관타나메라

호세 마르티

곡도 곡이지만 노랫말 역시 그에 못지않게 아름답다. 문장도 단순하고 의미도 명쾌해서, 한 번 듣기만 해도 절로 흥냄새 나는 고향의 정취에 물들게 된다. 장독대에 놓인 질그릇처럼 소박한데, 가만히 음미해보면 강고한 의지가 느껴진다. 마치 저문 강에 sap을 씻어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농부의 카랑카랑한 눈빛과 굳건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겉으로 드러난 말은 한없이 소박하고 단순하고 부드러우나 속살에는 굳은 심지가 박혀있다. 이런 외유내강의 울림을 껴안은 글을 가리켜 우리는 시(詩)라고 부른다.

실제로 관타나메라의 노랫말은 호세 마르티(José Martí)의 시이다. 호세 마르티는 1853년 쿠바의 아바나(Habana)에서 태어났다. 당시 쿠바는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독립운동에 관여하다가 식민 당국에 체포되어 6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옥한 뒤에는 유럽과 미국을 전전하며 기자로, 문필가로, 혁명가로 일했다. 미국에 머물 때인 1882년에 시집 『이스마엘리요 Ismaelillo』를 펴내고, 1891년에는 『소박한 노래 Versos sencillos』를 출판했다. 앞에서 소개한 관타나메라의 노랫말(후렴 제외)은 시집 『소박한 노래』에 수록된 여러 편의 시(I, III, V)에서 한 연씩 따온 것이다.

호세 마르티의 노랫말이 가지는 호소력은 문학적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 1895년 4월 11일, 마르티는 10명도 안 되는 동지들과 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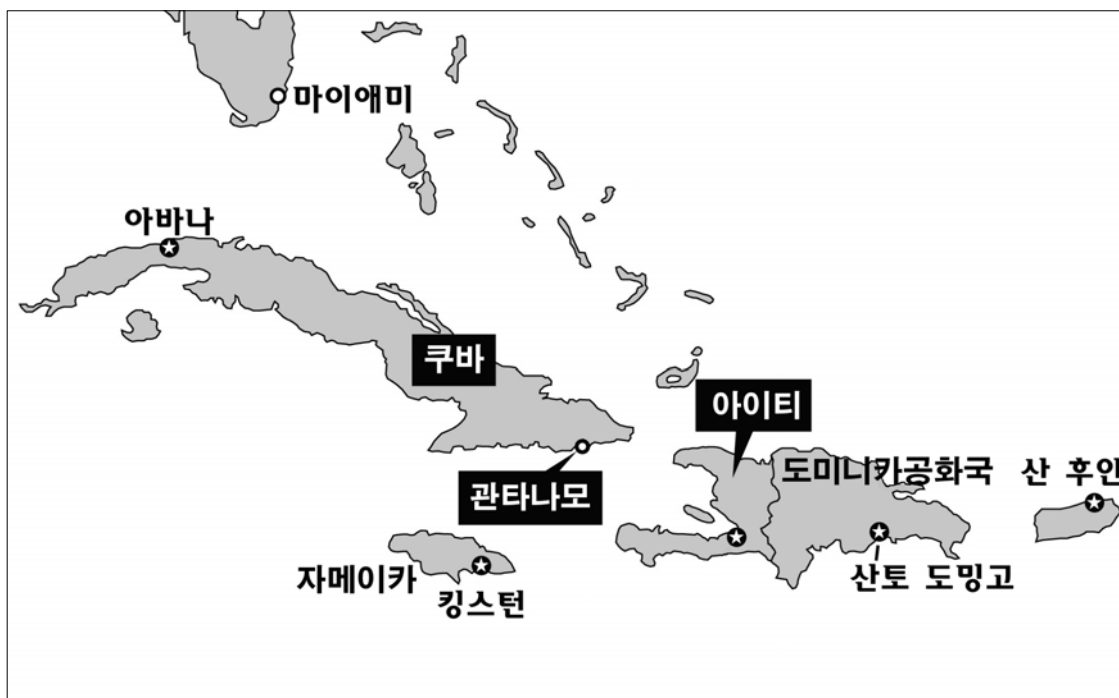
을 하고 바하마 군도의 이과나(Iguana) 섬을 출발하여 관타나모 부근의 마리시 콧(Cabo Marisí)에 상륙했다. 그리고 식민군대와 싸우던 중 그 해 5월 19일 도스 리오스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을 거두었다. 말을 행동으로, 글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 시에서 썼듯이, 죽기 전에 노래를 쏟아내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런 호세 마르티의 시와 일생을 보고 있으면, 영국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이 떠오른다. 두 사람은 넘쳐흐르는 감성으로 노래하고, 타국 혹은 자국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내던졌으며, 바이런은 그리스의 독립지사로, 마르티는 쿠바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점에서 너무나 닮은꼴이다. 문학에서는 낭만주의의 특징이라고 딱지를 붙여 버리고 그냥 넘어가지만, 누더기처럼 변해버린 일상을 매섭게 끊어내고 숭고한 대의로 불타오른 이런 사람들의 행적과 시를 되뇌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가슴 또한 광야의 찬바람을 안을 때처럼 선연해진다.

이쯤에서 호세 마르티와 관타나메라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산타 이피헤니아에 있는 호세 마르티의 무덤



관타나메라

관타나메라는 스페인어로 쿠바의 ‘관타나모(Guantánamo) 지방 출신 여자’라는 뜻이다. 후렴에 등장하는 과히라는 ‘여자 농부’라는 뜻과 아울러 쿠바 농촌에서 부르는 노래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과히라 관타나메라’는 ‘관타나모 지방의 여자농사꾼’ 정도로 옮길 수 있을 것인데, 호세 마르티의 시에 과히라나 관타나메라라는 단어는 얼굴조차 내밀지 않는다.

사실, ‘관타나메라, 과히라 관타나메라’는 1940년대 쿠바의 유행어였다. 당시 유명한 대중가수 호세이토 페르난데스는 세에메쿠(CMQ)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 진행했는데, 그 이름이 ‘관타나메라’였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수들이 등장해서 그 날그날의 사건사고를 노래로 전달하고,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합창으로 ‘관타나메라, 과히라 관타나메라’라고 외쳤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불행하고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는 “관타나메라에게 들었는데…”(Me cantó una Guantanamera)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은 관타나메라 노래를 만든 사람이 호세이토 페르난데스라고 쉽게 믿어버린다. 그러나 『쿠바 음악의 기원』을 쓴 토니 에보라에 의하면, 호세 마르티의 시에 곡을 붙인 사람은 1940년에서 1963년까지 쿠바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스페인 출신의 작곡가 홀리안 오르본이다. 적어도, 호세이토 페르난데스는 관타나메라 노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관타나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타나메라는 쿠바인들에게 아득하게나마 역사적인 소명 같은 것을 환기하고 있었다. 쿠바는 호세 마르티가 죽은 지 3년 뒤인 1898년 독립한다. 하지만 이 독립은 아쉽게도 지난한 독립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에서 나온 부산물이었다. 1898년 미국의 선전포고로 발발한 미서전쟁(Spanish-American War)은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승전의 대가로 그때까지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넘겨받는다.

쿠바 독립군은 처음에는 미군과 연합하여 스페인군과 싸우기도 했으나, 미국에 의한 독립이 실상은 신식민지 상태로 전락한 것임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미국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쿠바인의 저항이 거세지자 미국은 1901년부터 쿠바를 확실히 지배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 최종결과물이 1903년 미국의 강

압으로 조인된 이른바 ‘플랫 수정안’이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어느 때라도 쿠바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쿠바는 미국에게 “급탄시설이나 해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특정지역의 땅을” 임대하거나 매각해야만 한다.

이 특정지역의 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타나모이다. 1934년 미국은 ‘선린외교’를 한다면서 플랫 수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만, 여전히 관타나모는 연간 2000달러(1903년도 기준가격)에 임대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때까지 쿠바에는 바티스타 같은 친미정권이 들어섰으므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사람이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호세 마르티가 독립운동에 생명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1959년 혁명 이전 쿠바는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반(半)식민지였다. 그뿐 아니라, 알 파치노 주연의 영화 《대부》 2편에서 압축적인 장면으로 보여주듯이, 미국인이 주색잡기를 즐기는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 환락의 전성기, 그러나 진정한 독립을 꿈꾸는 쿠바인들을 철권으로 억누르던 탄압의 절정기에 ‘찬찬 Chan Chan’ 같은 야릇한 노래로 미국 관광객들에게 서비스하던 음악그룹이, 좋던 싫던, 당시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의 참모습이다.

아무튼 관타나모는 쿠바인들에게 대미종속과 신식민질서의 상징이었고, 호세 마르티는 여전히 독립의 상징이었다. 관타나모를 환수하는 그 날이 바로 호세 마르티의 피맺힌 염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었다. 이리하여 지금껏 아무런 관계도 없던 호세 마르티와 관타나메라는 관타나모가 매개되면서 대미 자주독립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묶어진 것이다.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쿠바는 지속적으로 관타나모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이 매년 수표로 지불하는 임대료는 지금까

지 한 번도 환금하지 않았다. 미국도 서명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51조에 따르면, 강박이나 위협에 의한 조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타나모에 관한 미국과 쿠바의 조약은 무효이다. 미국은 관타나모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국주도의 냉전논리를 앞세워 쿠바의 정당한 주장을 묵과했다.



이제 관타나모는 국제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9·11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포로들을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하고, 인권을 유린하자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관타나모가 되살아 난 것이다. 덩달아 1960년대 초반 관타나메라를 미국에 소개한 포크송 가수 피트 시거(Peter Seeger)의 관타나메라도 새삼 주목받을 징후가 보인다.

가수도, 노래도 다 훌륭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난 역

사가 리바이벌되는 것 같아 웬지 마뜩찮다. 사실, 관타나모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2005년 7월 24일 나딘 고디머, 살림 랍라니, 노엄 촘스키, 리고베르타 멘추, 아돌포 페레스 에스키벨이 발표한 성명서의 제목처럼 “미국은 관타나모에서 즉시 떠나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관타나메라도 그저 쿠바의 민요쯤으로, 백인의 멜로디와 흑인의 리듬이 혼합된 쿠바 특유의 음악으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호세 마르티의 시도 정지용의 「향수」에 비견되는 쿠바의 서정시로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박병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책임연구원
